

해외

양돈뉴스

-홍보부-

'96 유럽 축산박람회 독일에서 개최

'96 유럽 축산박람회(유러티어 '96)가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소, 돼지, 닭 등 축산관련 설비와 기자재, 동물약품, 사료관련 제품등이 전시되고, 경영관련 세미나 등도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 광우병 여파로 돈육 구입비율 26% 증가

프랑스의 식품관련 전문지가 광우병에 관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8%의 소비자가 쇠고기 섭취 기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광우병의 여파로 돼지고기와 양고기, 계란을 평소보다 많이 구입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26%, 14%, 5%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광우병 여파로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닭고기와 생선이었다.

한편 프랑스 농무성은 금년 프랑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0.5%와 2%가 줄어들었으나, 1994년 이후 처음으로 3/4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금년 가을

에는 3%까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4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새끼돼지가 3%, 어미돼지가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금년 프랑스의 총 돼지고기 생산량은 0.2%,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만, 베트남에 대규모 양돈 투자

대만의 최대 가축생산회사인 대당공사는 엄격한 환경보호법의 적용으로 대만 내에서의 가축 사육에 제한이 많아지고, 대만의 WTO참여로 보다 싼 외국산 돼지고기가 밀물 듯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돼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대당공사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돼지 사육을 위해 베트남에 9백30만달러(약 76억2천만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당공사는 이 양돈장에서 1998년에 2천 5백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1999년과 2003년 사이에는 매년 5천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당공사는 향후 4년간 필리핀에 합작회사를 설립, 총 2백90만달러(약 23억7천만원)를 투자해 양돈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일본, SG발동으로 7월 돈육 수입량 급감

일본의 지난 7월중 돼지고기 수입량은 7월1일부터 재발동된 SG(긴급수입제한조치)영향으로 지난해 7월보다 30.3%나 급감했다.

일본은 지난 7월에 냉동돼지고기 25,172톤과 냉장돼지고기 15,608톤 등 총 40,780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30.3%나 줄어든 양이다. 그러나 이같은 돼지고기 수입량의 급감속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높은 냉장돼지고기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2.7% 증가했다. 반면 냉동돼지고기는 지난해보다 무려 41.8%나 수입량이 감소해 SG발동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국별로는 대만이 23.9%, 덴마크가 65.8%, 캐나다가 48.8%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25%, 미국은 3.9% 증가했다.

그러나 상반기중, 특히 SG발동이 해제되었던 5~6월에 돼지고기가 대량 수입되었기 때문에 7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 양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로써 일본이 금년들어 지난 7개월간 수입한 돼지고기 양은 냉장돼지고기가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100,773톤이다. 국별로는 지난해보다 우리나라가 320%(23,621톤)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미국 99.7%(101,484톤), 캐나다 79.1%(31,345톤), 덴마크 52.3%(115,170), 대만 11.1%(167,246톤) 순으로 증가했다.

덴마크, 광우병 여파로 종축암돼지 사육규모 상당량 증가

96년 8월 덴마크의 돼지 사육규모가 95년 8월과 거의 같지만 종축암돼지수는 상당량 증가한 데 반해 도축용 암돼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향은 광우병 파동 여파로 유럽의 돼지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덴마크의 돼지고기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예상되었던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덴마크의 현재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킬로그램당 11.8Dkr(덴마크 화폐단위)로 5년내 최고치로 상승해, 덴마크 양돈가들이 광우병 파동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50kg 이상의 도축용 돼지의 금년 8월 사육규모는 작년 8월보다 5% 감소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덴마크의 돼지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지만 광우병파동 여파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돼지가격이 덴마크보다 더 높게 상승해 덴마크의 돼지수출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격차이로 인해 덴마크산 젓을 막 썬 돼지의 독일 수출이 상당량 증가했다. 현재 독일의 시세가 덴마크보다 kg당 2Dkr(덴마크 화폐단위)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덴마크의 돼지 수출량은 70만마리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 예상된다. 94년에는 46만8천마리, 93년에는 28만5천마리였다. 예년같으면 월 수출량이 1만5천마리로 금년 총 수출량이 18만 정도이다.

•본지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